



‘미스터 이지(Mr Easy)’, 바나바즈둘리(Vanja Bazdulj) photos by Matjaž Tančič

## 펠트를 똑딱

[www.vanjabazdulj.com](http://www.vanjabazdulj.com)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현재 런던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바나 바즈둘리(Vanja Bazdulj)는 ‘벤처라 람브라테(Ventura Lambrate)’와 ‘DMY 베를린’에서 ‘러프 & 레디(Rough & Ready)’를 소개했다. 그녀는 여러 장의 울 펠트를 겹치고 접은 후 큰 시트 한 장을 두르고 끈으로 고정해 이 의자 시리즈를 완성했다. 의자들의 모습은 완벽함과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마구 뿌려댄 염료 역시 대중 만든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계산된 과정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의 결함, 실수, 사고도 반영된다”며 “그것이 내 작업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사이드킥(Sidekick)’, 바나바즈둘리(Vanja Bazdulj) photos by Matjaž Tančič



‘미스터 소프트(Mr Soft)’, 바나바즈둘리(Vanja Bazdulj) photos by Matjaž Tančič



바나바즈둘리(Vanja Bazdulj) photos by Matjaž Tančič

###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나?

가장 먼저 나는 전문적인 도구와 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 과정을 찾았다. 무엇보다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나만의 과정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다가 ‘펠트’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당시 나는 이미 몇 가지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큰 규모의 접이식 시트였다. 나는 펠트 소재를 통해 내 작품을 소규모 건물 모델을 연상하게 하고 싶었다. 또 사용자가 그것을 미완성처럼 보고 사용하는 데 의구심을 갖지만, 결국 그것의 편안함과 기능성에 놀라도록 하고 싶었다.

### 디자인 콘셉트와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

디자인 콘셉트는 불완전함에 관해서다. 결함을 인식하고 사물의 렌더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문맥에 가장 큰 영감은 다른 아티스트들이었다. 그 중 몇몇을 말하자면,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 마르텐 바스(Maarten Baas), 나초 가보넬(Nacho Carbonel)이 있다. 실용적인 면에서 콘셉트는 ‘표시(Marking)’로 활용됐다. 펠트 시트에 다양한 컬러의 장식으로 보이는 구조를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꽤 급한 성격인데, 그것은 이 프로젝트에서도 직접적으로 엿보인다. 나는 오직 손드로잉만을 사용했고, 생각대로 측정하면서 빠르게 테스트했다. 프로토타입은 한 차례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큰 규모에서 결과가 어떻게 보일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규모를 직접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큰 보람과 즐거움이었다. 정확히 모르는 것은 언제나 내게 탐험이 되며 특별한 곳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 그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모두 만족스러웠나?

항상 그렇진 않다. 몇 가지는 폐기하고 다시 작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버리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 역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난 여전히 펠트에 매혹돼 있고, 최근에는 소재를 직접 양으로부터 얻어서 스스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실험이다. 대부분 그것과 함께 다른 소재 화합물을 사용해 다른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아직 무엇을 만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러프 & 레디’와 함께 이번 가을 텐트 런던(Tent London)에서 선보일 예정이다.